

‘또다시 입꼬리 싹룩’… 10대 女 살해범에 시민 분노

4일 살인혐의 박대성 검찰 송치 혐의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범행 후 기괴하게 웃는 모습 포착 국민적 공분 커져…기중처벌 요구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 씨가 머그샷에 이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입꼬리를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대성은 ‘범행 과정이 기억나냐’는 기자 질문에 ‘조금씩 기억난다’고 답하면서도 ‘어디까지 기억나느냐’, ‘계획된 범행이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순천경찰은 지난 4일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박대성(30)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순천경찰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포도라인에 섰다.

고개를 꼭 숙여 자신의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기자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작게 내뱉었다.

또 ‘범행이 기억나냐’는 질문에 “조금씩 기억난다”고 답하면서도 ‘어디까지 기억나냐’, ‘계획한 범죄였냐’는 등 혐의 관련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특히 박씨는 이날 경찰서 1층에서 모습을 보일 때 태연하게 웃고 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뒤 표정을 바꾸며 고개를 숙였으며 포도라인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표정을 보였다.

앞서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13분이 흐른 뒤 인근에서 맨발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당시에도 박씨는 기괴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경찰이 신성정보와 함께 공개한 머그샷 사진에서도 목 전면에 문신을 한 채 환한 미소를 띤 모습에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가 한층 커지고 있다.

박씨의 웃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통해 ‘웃어?’, ‘죄송한 것 같지 않은데’, ‘소름끼친다’,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박씨에게 사형이나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양형 기준은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면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황장애가

있다” 등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이어온 점 등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경찰은 박대성이 흥기를 쟁겨 나와 허리춤에 감추고 범행 후 버리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구속적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소주 4병을 마셨으며,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술진 A양과는 모르는 사이로 원한이나 금전적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자신이 평소 음주 시 폭력성이 있으며 이성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그날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도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경찰은 지난달 30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의해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씨가 지난 4일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검찰 송치

과속 확인·음주운전은 기준 미달 조력자·동승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추가 범죄 연루 여부 등 수사 확대

광주 도심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고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와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인 조력자 A(33)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오전 7시5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사고 직후 왜 도망갔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법인 명의의 수입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인근에 버려둔 채 지인들의 도



움을 받아 대전으로 도주, 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사고 67시간여만인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에서 김씨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술집 CCTV 영상과 영수증 등을 확보한 경찰은 체중과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

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인 0.03%에 미달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감정 결과를 통해 김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81km로 과속 주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씨를 대전으로 데려다 준 B(32)씨와 동승자 C(29)씨에 대해서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위드마크 기법 적용 결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B·C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4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김씨가 주행한 마세라티는 서울의 한 유통업체 소유 법인 차량으로, 김씨는 입국 다음날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지인 최모(32)씨에게 해당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을 빌려준 최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차량 입수 경위 등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해당 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D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도피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조직 연루·대포차 유통 등 추가 범죄 연루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그린궁프라임에버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그린궁프라임에버120

080-234-6588

소비자상담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
첨가제
무
색소
무
설탕